



6월 11일(월) 16:00(회의종료) 이후 사용

(※ 본 자료는 기사작성 편의를 위한 초안이며,
회의결과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추가배포 될 수 있습니다)

담당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부장 이진원, 사무관 송강일
(02-2100-2032, 2041)

러시아월드컵 및 하계 선교활동 급증 대비 테러대응태세 점검

- 러시아월드컵 임시영사사무소 설치 및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테러위협요소 분석
- 하계 휴가철 대비 선교사와 성지순례객 대테러대책 논의

-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센터장 문영기)는 6월 11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정원, 경찰청, 소방청 등 9개 관계기관 위원들(국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대테러센터장 주재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 (참석)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외교·국토교통·문화체육관광, 경찰·해양경찰, 합참, 기무사 등 9개 기관

- 회의 안건으로, 첫째, '18년 러시아 월드컵(6.14~7.15, 현지기준) 개최를 앞두고, 외교부와 대테러센터, 국정원, 경찰 등이 참여하는 대테러안전대책본부를 운영기로 했습니다.

- 특히, 현지에는 외교부에서 공관원과 관계기관 직원들을 파견받아 우리 국민들의 테러 등 사건·사고 발생 시 피해자 지원과 영사업무 지원 등을 위해 현지에 임시 영사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예정입니다.

- 임시 영사사무소는 우리나라 예선 경기가 열리는 니즈니노브고로드(6.17~19), 로스토프 나도누(6.23~25), 카잔(6.26~28)에 각각 3일간 운영하고, 이후 16강 진출 여부에 따라 추가 편성할 예정입니다.

- 둘째,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8.18~9.2, 현지기준)의 테러 위협 요소를 분석하고, 범정부적 대응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로서 최근까지 테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이라크·시리아에서 전투에 참여했던 외국인 테러전투원(FTFs)의 귀환과 함께 동남아 지역의 테러정세가 불안해지고 있어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 ※ 5.13 수라바야시 ISIS 추종 일가족의 연쇄 폭탄 테러(13명 사망, 40명 부상)
 - 5.15 수라바야 경찰검문소에서 오토바이 2대에 나눠탄 일가족이 폭탄 테러(6명 사망, 10명 부상)
 - 5.16 페칸baru 지역 경찰서에 무장괴한 난입, 장검으로 경찰 살해
 - 6.3 인도네시아 의회에 폭탄 테러를 음모중인 용의자 3명 검거
 - 아울러 국가대표 선발전이 아직 진행 중임을 감안하여 선수단·임원 규모와 현지 도착 일정 등이 확정된 이후, 임시영사사무소 설치 여부 등 세부계획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단기선교 방문 및 성지 순례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 현지법과 현지 관습을 위반한 선교사들의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타 종교에 대해 배타적인 문화권에서의 선교 활동은 큰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관계기관별 대비책을 심의했습니다.
 - 정부는 지난 6월 7일(목) 외교부 주관으로 선교단체의 하계 선교 활동 대비 관계부처 안전간담회를 개최하여 여행객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유관기관들이 주의토록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하계 휴가철을 맞아 국외 여행을 준비하는 우리국민들의 테러사건에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유지할 계획입니다.